

94. 6. 23

직업훈련 '여성할당제' 필요

여성노동자협, 전직 교육 강화등 주장

저임금·단순직·불안정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각종 직업훈련에 여성할당제 도입, 여성의 전직·재취업훈련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회장 이영순)는 22일 발표한 연구보고서 <여성직업훈련 현황 및 확대방안>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여성직업훈련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제조업 생산직분야의 미혼 여성노동력 유입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40~50대 기혼 여성노동력이 대거 증가하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여성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이 사양화하면서 휴·폐업으로 인한 실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전직훈련 등의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정책 수립·시행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여성기술교육 포함 △여성직업훈련정책의 방향을 여성기능인력 양성과 여성의 평생직장을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전환 △각종 직업훈련에 여성할당제 실시 △여성전용 직업훈련원의 확대 △여성에게 대한 전직·재취업훈련의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신연숙 기자